



### 죄가 불협화음을 가지고 읊.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충성을 인정하는 동안 하나님의 온 우주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었다. 창조주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 하늘 천사들의 기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그분을 찬미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호간의 사랑도 믿을 만하였고 무아적이었다. 하늘의 조화들을 파괴할 불협화음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상태에 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죄의 결과였다.

### 그리스도인과 전쟁

가인의 첫 살인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미국의 언론인 Norman Cousins는 B.C.3600년부터 주후 1950년까지 14,500 차례의 전쟁이 있었고 35억명이 죽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가라고 명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전쟁과 군복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 원칙이다. 이것은 비폭력과 무저항에 기초한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는 평화의 메시아였기 때문이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롬 12:17).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 5:15,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마 5:39).

### 성경의 가르침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기를 들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모본에 대해 가르친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사 2:4).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

###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화도 피해야 함을 가르친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마 5:20-21).

“생명을 단축시키는 모든 부정한 행위와 증오와 복수의 정신과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우리로 그들이 해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도록 만드는 감정에 빠져드는 것(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인 까닭에)과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이기심 때문에 돌보는 일을 게을리한 행위와 모든 방종이나 불필요한 소모나 건강을 해치는 경향이 있는 과중한 노동—등이 모든 것은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다 여섯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부조와 선지자, 308.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롬 12:19).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히 10:30).

### 사도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는 갈등과 전쟁이 있는 곳을 떠나라고 가르치셨다.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눅 21:21).

제2차 유대전쟁이 일어났을 때(A.D. 132-135), 그리스도인들은 무기를 버리고 싸움터를 떠났고, 2-3세기의 군복무와 무기소지에 반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순교자의 증언으로 표현될 수 있다:

“정부 관리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군복무를 할 수 없다.”(Acta Maximiliani In Thierry Ruinart, *Acta sincera martyrum*, Ratisbonae, 1895).

## 초기 재림 선구자들

처음으로 재림교인들이 전쟁에 직면한 것은 1861년에서 1865년 사이에 북미 지역에서 발생한 남북전쟁이었다. 재림교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안식일준수자들은 이제 이 끔찍한 전쟁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며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한 희망이 없다. 황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쏟아져서 찢고 파괴할 것이다. 세상의 거민들은 칼과 기근과 온역에 붙여져 있다.”- *Manuscript Releases*, Vol.7, p.112.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 있는 그분의 백성들이 이 난처한 전쟁에 가담할 수 없음을 보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모든 신앙상 원칙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그들은 진리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상관들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 거기에는 계속적으로 양심을 어기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은 국가의 모든 선한 법률을 따를 것이다. 그러나, 만일 통치자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율법과 상치될 때에는, 우리가 가부간 결정해야 할 유일의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사람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교회 증언 1권, 361, 362.

## 개혁운동 세계선교회의 탄생

1914년 7월 28일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독일 재림교회는 큰 혼란 속에 빠진다.

“G. Dail 형제의 1914년 8월 2일자 순환서신이 함부르크에서

보내졌으며, 군대에 참여할 것과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간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의 양심적 확신과 신실한 형제들로 인해 많은 곳에서 신성한 법의 파괴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는 선언이 있었다.”-오토벨프, 안식일준수, 1921, special edition.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자들은 2%였고 나머지 98%는 계명을 버렸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은 출교당하였다.(독일 드레스덴 신문, 1918.4.12.일자).

혼란의 현장 속에 있었던 개혁운동 세계선교회 선구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다.

“No. No.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배교(apostasy)입니다. 우리는 전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혼돈과 의견의 충돌이었다. 아무도 그것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생각할 수 없었다.”- 오스카 크라머, 개혁운동의 탄생과 발전, 1987.

## 박해와 순교

브레멘, 브레멘 북주, 에센, 수투트가르트 교회에서 교인들이 출교되었다. 라인란트의 코블렌츠, 베르멜스키르헨, 크레이 같은 곳에서 교회가 해산되었다. 출교당한 형제들은 믿음을 고수한 형제들은 홀로 남았으며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하였다.

형제들은 징집되었으나, 영광스러운 안식일에 믿음으로 굳게 섰으며 여섯째 계명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 형제들의 이름은 Wilhelm Richter 형제를 포함하여 Hollman, Geselle, Wolz, Johannes Rauser, Crestfallen 등이다. 안식일에 무기를 들거나 일하는 것을 거절한 이유로 많은 형제들이 기소되어 처벌되었다. 그들은 폭행당하고 고문당했으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20명이 순교자로 생애를 마쳤다. 독일 비밀경찰의 보고서가 공개되면 더 많은 순교자가 확인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였는는지 정확히 모른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든지,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신실하게 남아있었다.

그들은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재림교회와 연합하기 위해 1922년까지 노력하였으나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계 12:17)처럼 한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계 12:17).

## 개혁운동 개혁운동세계선교회의 현재

개혁운동 세계선교회는 현재 미국 조지아주 시더타운에 대총회(www.sda1844.org)를 두고 전세계 150여개국에 교회를 두고 있다. 2000년 미국의 선교사를 통해 한국에도 교회(www.imssdarm.net)가 세워졌으며, 비록 소수이지만 전국에 성도들이 있다. 이 교회는 세상 끝날 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며 인내할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계 14:12).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계 18:1).

##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개혁운동 세계선교회 서울교회 (International Missionary Society SDA Reform Movement)

성경 가르침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www.thelastvoiceofGod.com//www.imssdarm.net

02) 2207-1233, 010-2460-0070(서울), 010-4185-9928(평택)

